

통계로 본 서울시민의 생활상

[e-서울통계 75호]

정보공개정책과(행정국)

- 본 보고서는 서울시민의 주거, 교통, 여가 등 주요생활상을 내용으로 요약과 서울시민 생활상, 인구 및 가구 참고통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음.
 - 1. 『요 약』
 - 2. 『서울시민의 생활상』
 - 3. 『인구 및 가구 통계(참고자료)』

- 주로 활용된 자료는 서울시 '인구통계·서울서베이' 및 통계청 '2012 장래인구추계' 이외에 통계청 '혼인통계·인구주택총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국가 승인통계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각종 보고서 등을 참고하였음.
 - 활용된 자료는 가장 최근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장래인구추계 자료는 2012년에 작성된 것을 활용하였으므로 2007년도에 추계 발표된 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 시계열 변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10년(2002~2012년), (2000~2010년), 최근 12년(2000~2012년) 추이를 살펴보았음.

- 자료이용 시 유의사항
 - 조사자료는 조사대상, 표본규모 및 설계 방법 등을 달리하는 타기관의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 필요함.
 - 통계표의 구성비 및 증감률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본문에서 주로 활용된 자료설명

○ (등록인구통계) 서울시

- 작성목적 : 서울시 인구의 변동상황 및 연령구조를 파악하여 각 지방행정 기관의 제반 행정사항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작성방법 : 주민등록인구(내국인)와 등록외국인을 포함시켜 서울 총인구 작성함.
- 기초자료 : 주민등록인구(내국인)는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정보이용시스템』 자료, 등록외국인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FINE)』 자료
- 집계방법 :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발표 시 내국인과 등록외국인이 포함되었으며, 주민등록법 개정('09.4.1)으로 종전의 무단전출 말소제도가 폐지되고 거주불명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10년말 기준부터 거주 불명자를 주민등록인구에 포함하여 집계함
- 유의사항 : 인구관련 통계는 추계인구, 총조사인구, 주민등록인구가 있고, 통계의 포괄범위, 작성기준, 작성방법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료이용에 유의바람.
 - ▶ 추계인구(2012년 장래인구추계) : 국가의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장래인구(매년 7.1기준, 2010~2040년 인구 추계), 최근의 출생, 사망, 인구이동 추이를 기초로 장래의 인구변화를 전망함(매년 7월 1일 기준)
 - ▶ 총조사인구 : 현재 경제 사회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인구(0, 5년 11월 1일 기준)
 - ▶ 주민등록인구 : 행정수요 파악 등 대민업무수행을 위한 주민등록상의 인구(분기별, 매년 12월 31일 기준) 특히, 유학 및 해외취업 등에 의한 해외 체류자가 포함되어 있음.

○ (시도별 장래추계인구) 통계청

- 작성목적 : 인구변동(출생, 사망, 이동)의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시도별 과거인구를 확정하고, 중장기 장래인구를 추계하여 국가 지역개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책 및 인구관련 각종 지표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작성방법 : 코호트요인법 (Cohort Component Method)
 - ▶ 코호트요인법이란 어떤 특정연도 특정시도의 성 및 연령별 기준인구에 시도별 인구변동 요인인 출생, 사망, 이동에 대한 장래 변동을 추정하여 이를 조합하는 방법
- 작성대상기간/시점 : 2010~2040년(30년간 : 매년 7월1일 기준), e는 추정치를 의미함.

○ (2012 서울서베이) 서울시

- 조사목적 : 서울시정 및 시민생활의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 조사대상 2만 표본 가구내 만 15세 이상 가구원 약 49,758명 조사 이중, 가구주 연령 65세이상 가구는 2,260 가구
- 조사기간 : 2012. 10. 1. ~ 10. 31.(한달간)

○ (시도별 장래가구추계-2012) 통계청

- 작성목적 : 가구의 양적질적 변화에 대한 정보는 각종 경제사회 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유용,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족 분화 및 해체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가구의 규모나 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어, 이를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한 장래가구추계가 필요
- 활용자료 : ① 기준가구 작성, 장래가구추계 및 가구구성비 추정 : 1990~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② 장래 가구추계 대상인구 추계 : 2011 장래인구추계(2010~2060)
③ 장래 혼인상태별 인구추계 : 인구동태자료 및 생명표(1990~2010)
- 작성대상기간/시점 : 2010~2035년(25년간 : 매년 7월1일 기준) , 2002년 최초작성

목 차

I. 요약	1
II. 서울시민의 생활상	2
1. 주거	2
2. 교통	3
3. 건강상태 및 운동	4
4. 여가 및 문화생활	5
5. 경제활동	6
6. 소득과 소비	8
7. 학교생활 만족도	9
8. 환경 및 에너지	10
9. 고향인식률	11
10. 서울시민의 주요 고민	12
III. 인구 및 가구 통계(참고자료)	13
1. 인구	13
2. 외국인 주민	14
3. 출생 및 사망	15
4. 혼인 및 이혼	16
5. 가족형태	17

I . 요약

- **(주거)** 2012년 만15세이상 가구주의 현재 거주지에 대한 주거환경 만족률은 54.2%, 보통 37.2%, 불만족 8.6%
 - 2010년 가구거처의 주택유형은 아파트(41.1%)>단독주택(37.2%), 점유형태는 자기(41.1%)>전세(32.9%)>월세(24.6%)
- **(교통)** 2012년 만 15세이상 시민 중 통근 및 통학하는 비율은 74.1%, 통근통학 시 평균 34.4분 소요
 -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와 지하철(버스+지하철 22.4%, 버스 20.9%, 지하철 14.6%)
- **(건강상태 및 운동)** 2012년 만 19세이상 45.0%(남성 50.0%, 여성 40.2%) '내 건강상태 양호하다' 느껴
 - 현재 흡연율 : 22.2%(남성 41.6%, 여성 3.7%), 고위험음주율 : 16.4%(남성 24.5%, 여성 6.1%)
 - 비만율 : 23.7%(남성 31.0%, 여성 16.5%)
 - 운동 실천율 : 17.0%(남성 20.6%, 여성 13.6%), 걷기 실천율 : 52.1%(남성 54.7%, 여성 49.5%)
- **(여가 및 문화생활)** 2012년 만 15세이상 서울시민의 주 여가활동은 TV(DVD) 시청, 희망 여가는 여행
 - 지난 1년동안(2011.10.1~2012.9.30) 문화활동 관람률 65.0%, 영화관람률이 최다
- **(경제활동)** 2012년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73.0%, 여성 52.3%로 여성의 경력단절 여전
 - 취업시장 고령화: 55세이상 취업자 02년 61만9천명(취업자 중 12.9%)→2012년 95만6천명(취업자 중 19.0%)
 - 2012년 4월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349만원, 월평균 근로시간 166시간
- **(소득과 소비)** 2012년 3월말 가구당 평균 자산액은 4억5,647만원, 이중 부동산이 71.9%(3억2,828만원) 차지
 - 2012년 3월말 가구당 평균 부채는 7,953만원,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은 63.1%
 - 2011년 한해의 평균가구소득은 4,850만원(중앙값 3,520만원), 이중 근로소득 65.6%
- **(학교생활 만족도)** 2012년 만 13세이상 서울 학생 49.0%는 학교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 불만족은 9.0%
- **(환경 및 에너지)** 2011년 시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0.90kg/일(국민 1인당 0.95kg/일)
 - 최종에너지 소비량 15,496천toe(시민 1인당 1.55toe), 이중 가정·상업에서 55.9% 차지
- **(서울시민 고향인식률)** 2012년 만 15세이상 서울시민 중 81.2% '살다보니 서울이 고향처럼 느껴진다'
- **(서울시민의 고민)** 2011년 만 15세이상 서울시민의 주 고민은 경제문제>건강문제 순
 - 10대는 공부, 20대는 경제·공부·결혼·취업 전반적 고민, 30~40대는 경제 및 자녀양육
 - 50대부터 건강문제 대두됨, 50대는 경제와 건강문제, 60세이상은 건강문제가 주 고민
- **(2012년 인구 및 가구 통계)**
 - 서울 인구는 10,442천명, 여성>남성, 연령분포는 30대>40대>50대, 60세이상>20대>10대>9세이하 순
 - 서울 외국인 주민은 39만5,640명, 이중 등록외국인은 24만7,108명임.
 - 한해 동안 출생은 9만3,914명(하루평균 257명), 사망은 4만1,514명(하루평균 113명)
 - 사망원인 순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자살>당뇨병>폐렴>간질환>만성하기도질환>운수사고>알츠하이머병
 - 평균 초혼연령 : 남성 32.4세, 여성 30.2세, 50세이상 이혼 : 남성 7,400건, 여성 5,278건
 - 가족형태 : 부부+미혼자녀 가구 36.0%, 1인가구 25.6%, 부부 12.6%, 한부모가구 10.2%

II. 서울시민의 생활상

1. 주거

- ▶ 현재 거주지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률은 54.2%, 보통 37.2%, 불만족 8.6%임.
- ▶ 2010년 처음으로 아파트 거주 가구(41.1%)가 단독주택(37.2%)을 추월함.
- ▶ 2010년 가구거처의 점유형태는 자가(41.1%), 전세(32.9%), 월세(사글세 포함) 24.6%임

□ 서울시민은 현재 거주지의 전반적인 주거환경에 대하여 '만족한다'가 54.2%, 보통 37.2%, 불만족 8.6%로 응답함.

< 현재 생활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 > (단위:%)

2012년	주거환경 만족도 (전체)	주택유형별			점유형태별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자가	전세	월세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만족	54.2	51.5	57.1	53.8	57.6	53.3	49.4
보통	37.2	38.9	36.0	36.3	35.3	38.3	39.0
불만족	8.6	9.6	6.9	9.9	7.1	8.4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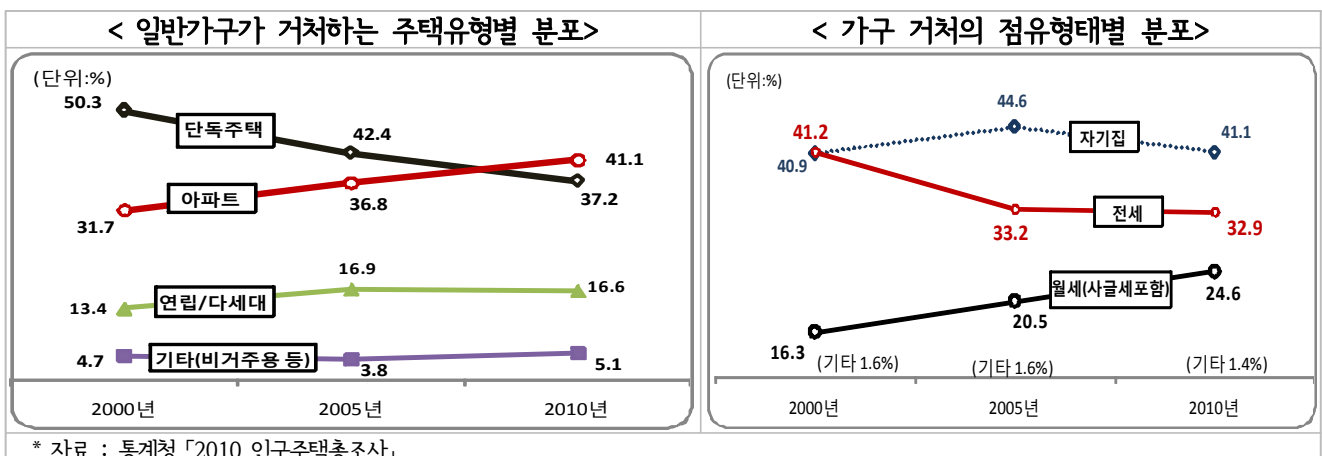
- 주택유형에서는 아파트에 살수록 만족률이 높고,
- 점유형태에서는 자기집에 살수록 주거환경 만족률이 높았음.

* 자료 : 서울시 「2012 서울서베이」

□ 서울 가구 중 아파트 거주자가 가장 많고, 점유형태에서는 자기집 거주자가 41.1%임.

-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2010년 전체의 41.1%로 2000년 31.7%에서 증가,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50.3%에서 37.2%로 감소함.
- 5년 전 대비 자가 및 전세는 감소, 월세는 증가하여 2010년에는 자기집 41.1%, 전세 32.9%, 월세 및 사글세 24.6%임.

※ 2012년 서울의 주택 수는 349만8천호로 이중 아파트가 154만7천호(44.2%), 단독주택 128만5천호(36.7%), 연립 및 다세대주택 64만2천호(18.3%),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2만4천호(0.7%)임.



2.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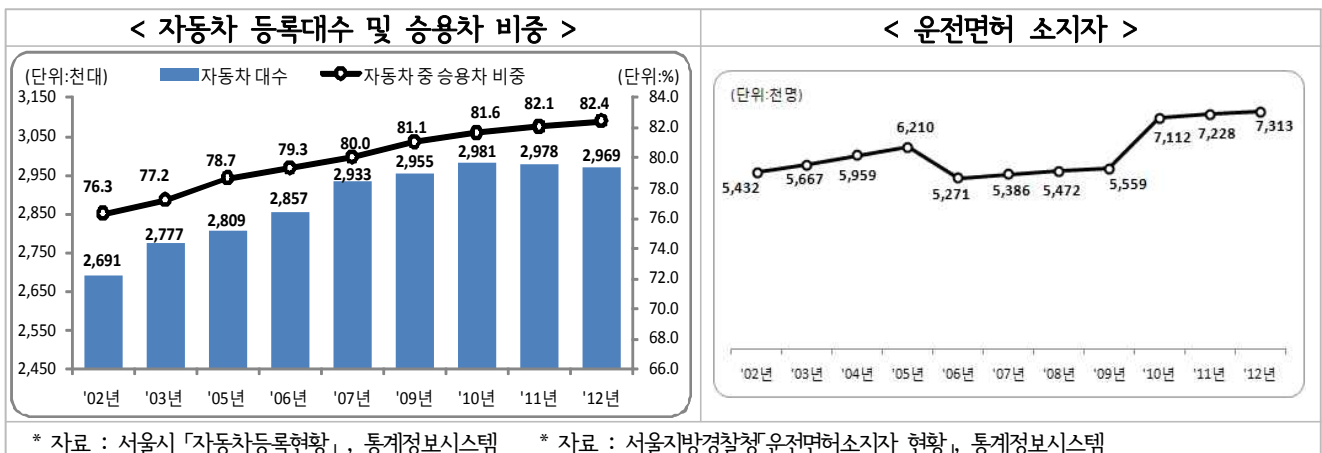
- ▶ 통근 및 통학하는 시민비율 74.1%, 통근통학 시 평균소요시간은 34.4분.
 -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와 지하철(버스+지하철 22.4%, 버스 20.9%, 지하철 14.6%)
- ▶ 대중교통 이용 만족률 : 지하철(64.7%), 버스(60.6%), 택시(38.4%)
- ▶ 2012년 서울 자동차 등록대수는 296만9천대, 이중 82.4%가 승용차

- 2012년 만 15세이상 서울시민 중 74.1%가 통근 및 통학을 하고 있으며, 통근 및 통학시 평균소요시간은 34.4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만 15세이상 서울시민 중 통근은 59.0%이고, 통학하는 시민은 15.1%임. 통근 및 통학지역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로는 19.0%, 현재 살고 있는 구내 다른동으로는 33.0%, 다른구로는 42.4%, 다른 시도로는 5.7%임.
 - 서울시민이 통근 및 통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와 지하철만 이용(버스만 이용, 지하철만 이용, 버스와 지하철 환승)이 57.9%로 나타남.
 - 교통수단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버스 이용 만족률은 60.6%, 지하철은 64.7%, 택시는 38.4%로 나타남.

< 통근 및 통학 시 주 교통수단 > (단위:%)												< 대중교통이용 만족도 > (단위:%)			
2012년	계	도보	자전거	버스(버스+지하철 환승포함)	지하철(철도)	버스+지하철	택시	승용차	승용차+버스	승용차+지하철	기타	2012년(이용자 중)	버스	지하철	택시
통학/통근	100.0	15.3	3.1	20.9	14.6	22.4	0.1	21.1	0.8	1.3	0.4	계	100.0	100.0	100.0
- 통학	100.0	27.3	4.5	29.2	12.3	25.4	0.0	0.6	0.2	0.1	0.3	만족	60.6	64.7	38.4
- 통근	100.0	12.2	2.8	18.7	15.2	21.6	0.1	26.3	1.0	1.6	0.4	보통	33.8	30.0	42.5
												불만족	5.6	5.3	19.0

* 자료 : 서울시 「2012 서울서베이」

- 2012년 서울 자동차 등록대수는 296만9천대, 운전면허 소지자는 731만3천명임.
 - 2012년 자동차 등록대수 중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82.4%(2,448천대)에 해당함.
 - 운전면허 소지자 중에서는 여성이 271만5천명으로 37.1%를 차지하고 있음.



3. 건강상태 및 운동

- ▶ 건강관심 증가로 흡연율, 음주율은 감소하는 반면 비만율은 증가
 - 남성 비만율 여성의 약 2배 수준
- ▶ 서울시민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인지도 감소 : 2008년 50.9% → 2012년 45.0%
- ▶ 서울시민은 건강관리로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 더 많이해
 - 격렬한 운동실천율 17.0%, 걷기 실천율 : 52.1%

□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성인(19세이상) 흡연율과 음주율은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여 건강문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비만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 비만율은 2012년 31.0%에 이르고 있음.

- 흡연율 : 2008년 24.2% → 2012년 22.2%(남성 41.6%, 여성 3.7%)
- 고위험 음주율 : 2008년 20.3% → 2012년 16.4%(남성 24.5%, 여성 6.1%)
- 비만율 : 2008년 20.6% → 2012년 23.7%(남성 31.0%, 여성 16.5%)
- 주관적 비만 인지도 : 2008년 30.0% → 2012년 40.0%(남성 38.4%, 여성 41.6%)

□ 건강관리로 격렬한 운동 및 걷기를 실천하는 시민 비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하고 있음.

- 격렬한 운동 실천율 : 2009년 19.2% → 2012년 17.0%(남성 20.6%, 여성 13.6%)
- 걷기 실천율 : 2009년 60.8% → 2012년 52.1%(남성 54.7%, 여성 49.5%)

□ 만 19세이상 서울시민의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인지는 2008년 50.9%에서 2012년 45.0%로 줄었으며, 남성(50.0%)이 여성(40.2%) 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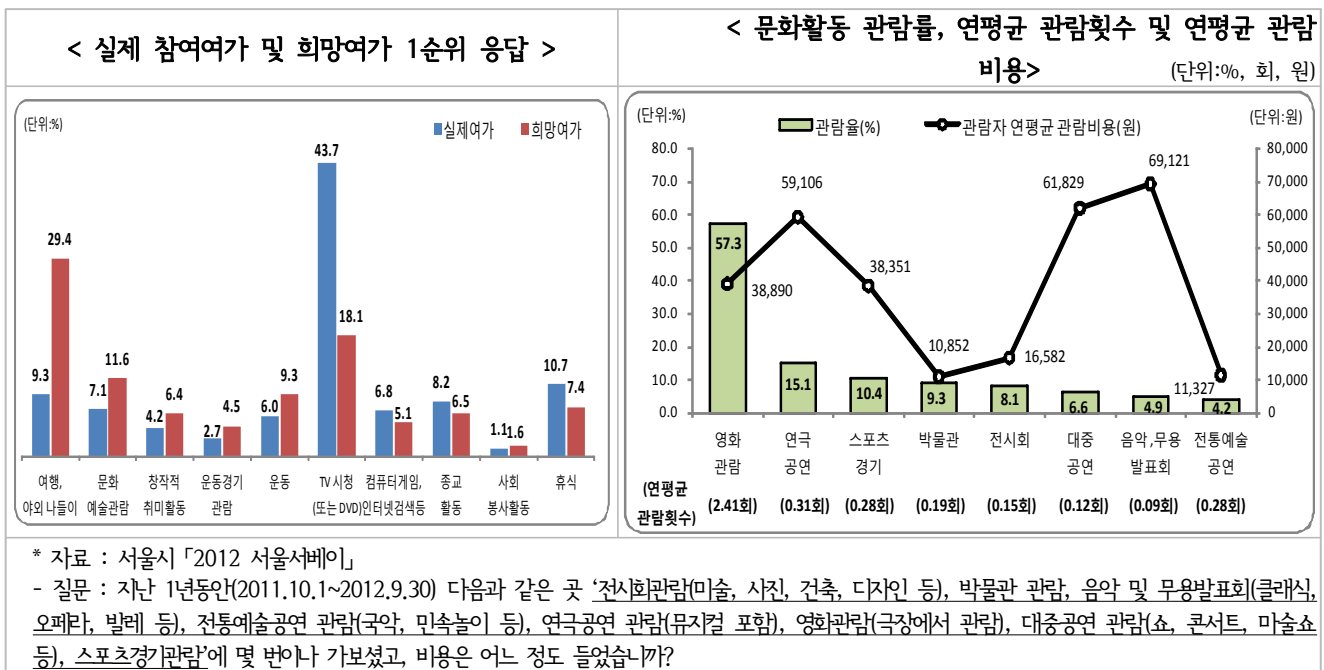
년도별	현재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주관적 비만 인지도			격렬한 운동 실천율			걷기 실천율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인지도		
	전체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2008년	24.2	45.6	3.7	20.3	29.1	8.0	20.6	26.6	14.7	30.0	28.2	31.6	-	-	-	57.4	58.8	56.0	50.9	55.6	46.4
2009년	24.3	45.5	4.0	17.1	25.3	6.1	21.3	27.7	15.2	32.2	30.9	33.5	19.2	23.5	15.0	60.8	61.7	59.9	49.3	53.4	45.4
2010년	23.2	43.5	3.6	15.7	24.4	4.9	21.7	28.5	15.1	35.7	34.0	37.3	18.6	22.3	15.0	55.7	57.5	54.1	48.8	53.8	44.0
2011년	22.3	42.0	3.5	18.2	28.1	6.3	22.7	29.8	15.9	39.6	37.7	41.4	19.2	23.0	15.6	54.1	55.5	52.7	45.2	50.5	40.2
2012년	22.2	41.6	3.7	16.4	24.5	6.1	23.7	31.0	16.5	40.0	38.4	41.6	17.0	20.6	13.6	52.1	54.7	49.5	45.0	50.0	40.2

*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대상 만19세이상
 - 중등도이상 신체활동 실천율(격렬한 운동 실천율) : 최근 1주일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20분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수 또는 최근 1주일(7일) 동안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30분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 걷기 실천율 : 최근 1주일(7일) 동안 1회30분이상 걷기를 주 5일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 현재 흡연율 : 평생 5갑(100개비)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의 분율
 - 고위험 음주율 : 최근 1년(365일) 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한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 비만율(%) : 체질량지수(kg/m²) 25이상인 사람의 분율, 체질량지수(BMI)=몸무게(kg)/키(m)²
 - 주관적 비만 인지도 : 주관적으로 약간 비만 또는 매우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분율

4. 여가 및 문화생활

- ▶ 주로하는 여가활동 TV(DVD)시청 가장 많고, 희망여가로는 여행이 가장 높음.
- ▶ 지난 1년동안 한번이라도 문화활동(문화예술 및 스포츠경기를 관람한 시민 비율 65.0% → 문화활동 분야 중 영화 관람률 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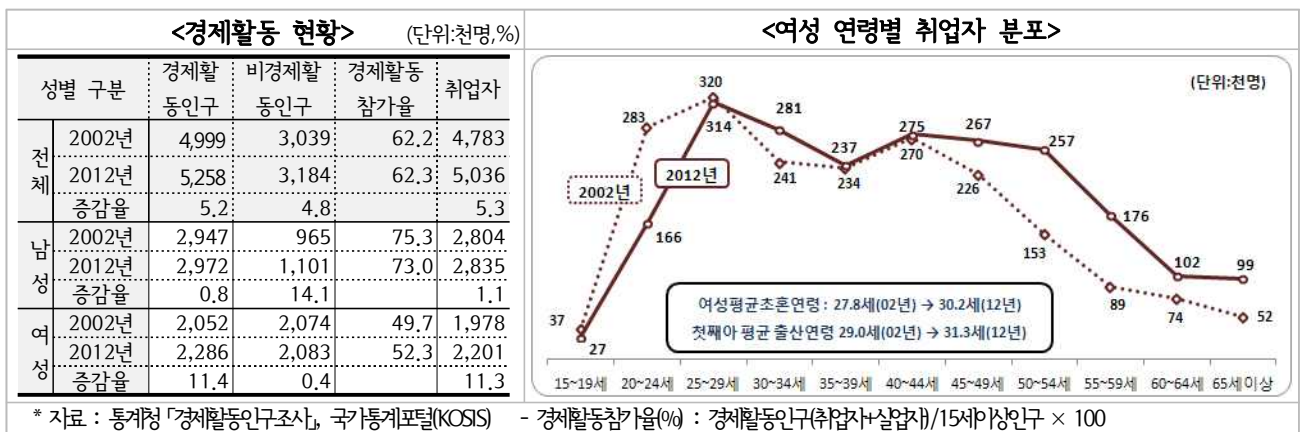
- 2012년 만 15세이상 서울시민들은 주말 및 휴일의 주 여가활동(1순위)으로 TV/DVD 시청이 43.7%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휴식 10.7%, 여행 9.3% 등의 순임.
- 반면,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여행이 2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TV시청 18.1%, 문화예술관람 11.6%, 운동 9.3% 등의 순으로 희망률이 높게 나타났음.
-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2011.10.1~2012.9.30) 만 15세이상 서울시민 중 65.0%는 문화활동(문화예술 및 스포츠경기)을 한번이라도(1번이상) 관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관람횟수는 3.82회임.
- 문화활동 유형 중에서 관람빈도 및 관람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영화 관람이고, 가장 낮은 분야는 전통예술공연과 음악 및 무용발표회 관람 순인 것으로 나타남.
 - ※ 문화활동 관람률 : 문화활동(전시회, 박물관, 음악 및 무용발표회, 전통예술공연, 연극공연, 영화, 대중공연, 스포츠경기)을 한번이상 관람한 경험이 있는 시민 비율
-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관람비율이 10%대 근처에 머물고 있어 영화를 제외한 문화예술 소비자층은 아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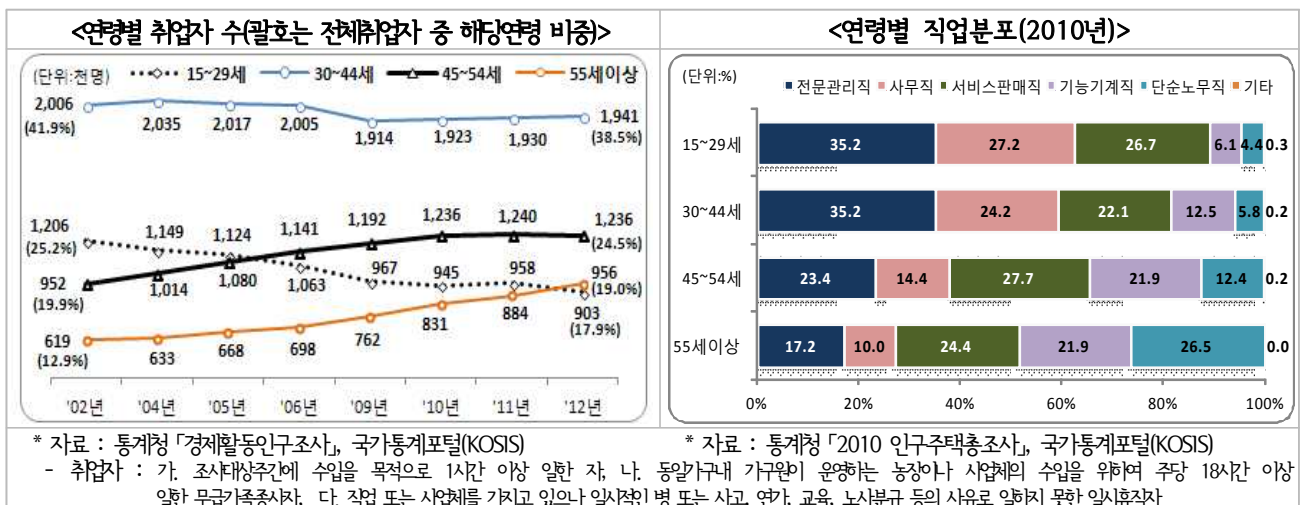
5. 경제활동

-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2.3%로 남성(73.0%)보다 20.7%p 낮아, 경력단절 여전
- ▶ 55세이상 취업자 10년 새 54.4% 증가 : 2002년 61만9천명 → 2012년 95만6천명
- ▶ 취업자 중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이 48.5% 차지
- ▶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349만원, 월평균 근로시간은 166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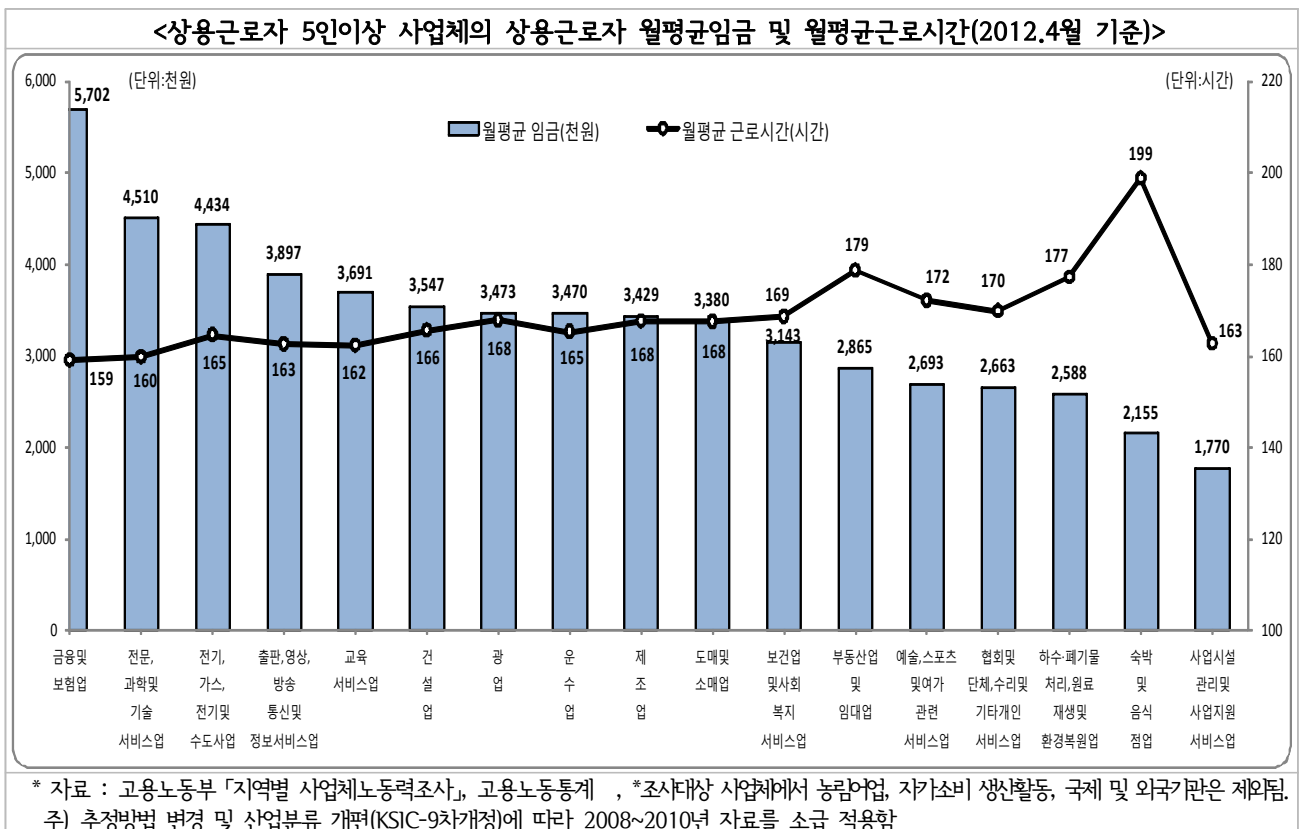
- 서울시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이 73.0%, 여성이 52.3%로 남성이 높음
 - 여성 경제활동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참가율 50% 수준으로 남성보다 20%p 정도 낮음.
 - 10년 전과 비교하여 20대 후반에서 여성 취업자의 경력단절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결혼 및 자녀출산연령의 상승, 경제활동 증가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경력단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취업자 연령구조도 점차 고령화되고 있어 15~29세 취업자는 줄고, 55세이상은 증가하고 있으나, 직업분포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55세이상 취업자 10년 새 54.4%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중 55세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2년 12.9%에서 2012년 19.0%로 증가함. 2012년 처음으로 15~29세 취업자를 추월함.
 - 2010년 통계로 보면, 15~29세는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에 62.4% 분포, 이들 직업에 55세이상 취업자는 27.2% 분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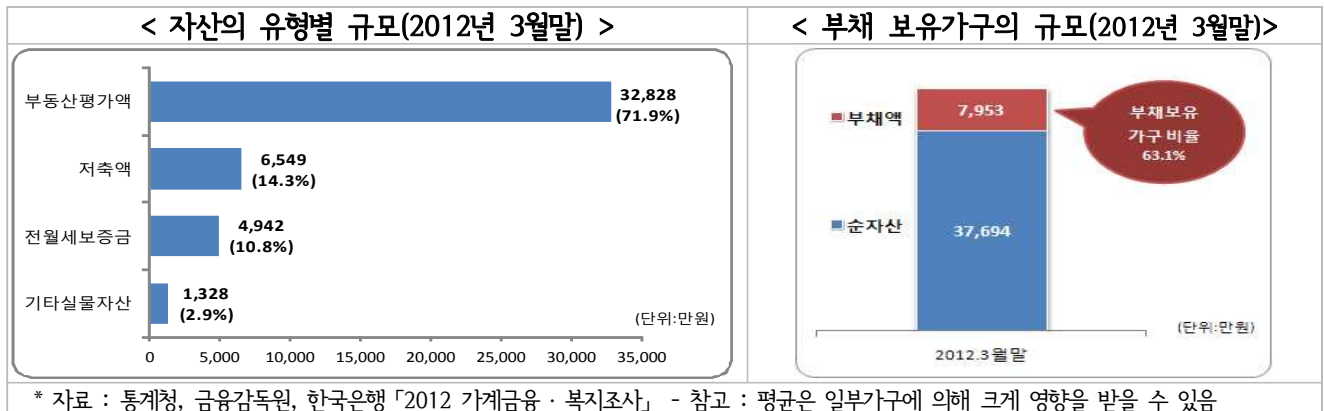
- 2012년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전문직이 25.5%(128만4천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무직 20.6%(103만8천명), 판매직 13.0%(65만4천명), 단순노무직 11.8%(59만2천명), 서비스 종사자 11.0%(55만5천명),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9.1%(45만9천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6.4%(32만2천명), 관리자 2.4%(12만2천명),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0.2%(1만1천명) 순으로 분포됨.
- 2012년 서울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389만8천명으로 77.4%, 비임금근로자는 22.6%(113만8천명)로 구성됨.
 -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는 2002년 141만3천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236만6천명으로 10년 동안 95만3천명(67.4%) 증가한 반면, 임시직은 10년 새 20만명(-15.0%), 일용직은 10년 새 20만3천명(-33.9%) 각각 감소함.
- 2012년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농림어업 부문 제외, 4월 기준)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9만원,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66시간임.
 - 산업별로 보면 2012년 4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70만2천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51만원) 순으로 높고, 월평균 총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159.1시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산업(159.8시간) 순임.



6. 소득과 소비

- ▶ 가구당 평균 자산액은 4억5,647만원(중앙값 25,073만원), 부동산이 71.9%(3억2,828만원) 차지
- ▶ 전체가구의 가구당 평균 부채는 7,953만원,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63.1%
- ▶ 2011년 한해의 평균 가구소득은 4,850만원(중앙값 3,520만원)

- 2012년 3월말 가구당 평균 자산액은 4억5,647만원, 평균부채는 7,953만원임.
 - 2012년 3월말 현재 가구당 평균 자산액은 4억5,647만원(중앙값은 2억5,073만원)이며, 자산은 부동산이 71.9%(3억2,828만원), 저축액 14.3%(6,549만원), 전월세보증금 10.8%(4,942만원)를 차지함.
 - 2012년 3월말 현재 전체가구의 평균 부채는 7,953만원으로 이중 금융부채 52.5%(4,175만원), 임대보증금 47.5%(3,778만원)으로 구성됨
 -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63.1%(부채보유가구의 평균 부채액은 1억2,597만원)임.
- 2011년 한해의 평균가구소득은 4,850만원(중앙값 3,520만원)이며, 이중 근로소득은 3,183만원(65.6%), 사업소득 1,146만원(23.6%), 재산소득 270만원(5.6%) 및 이전소득 252만원(5.2%)임.



- 19세이상 본인의 소득이 있는 사람 중 46.5%가 본인의 소득에 불만족하다고 응답.
- 19세 이상 가구주 본인이 생각하는 가구당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254만원이며, 가구 생활에 필요한 최소금액 대비 가구 실제 소득수준에 대해 여유있다는 응답이 19.7%, 걱정함 32.3%, 모자람 48.1%로 응답하였음.

- 또한, 19세 이상 인구 중 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을 포함한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15.4% 뿐이고, 38.2%는 불만족하다고 응답함.

< 소득 및 소비에 대한 주관적 판단 > (단위:%)

주관적 소득수준 (19세이상 가구주)				소득 만족도 (19세이상 인구)			소비생활만족도 (19세이상 인구)		
가구당월평균 최소생활비	여유 있음	적정 함	모자 략	만족	보통	불만 족	만족	보통	불만 족
254만원	19.7	32.3	48.1	13.6	39.9	46.5	15.4	46.3	38.2

* 자료 : 통계청 「2011 사회조사」

7. 학교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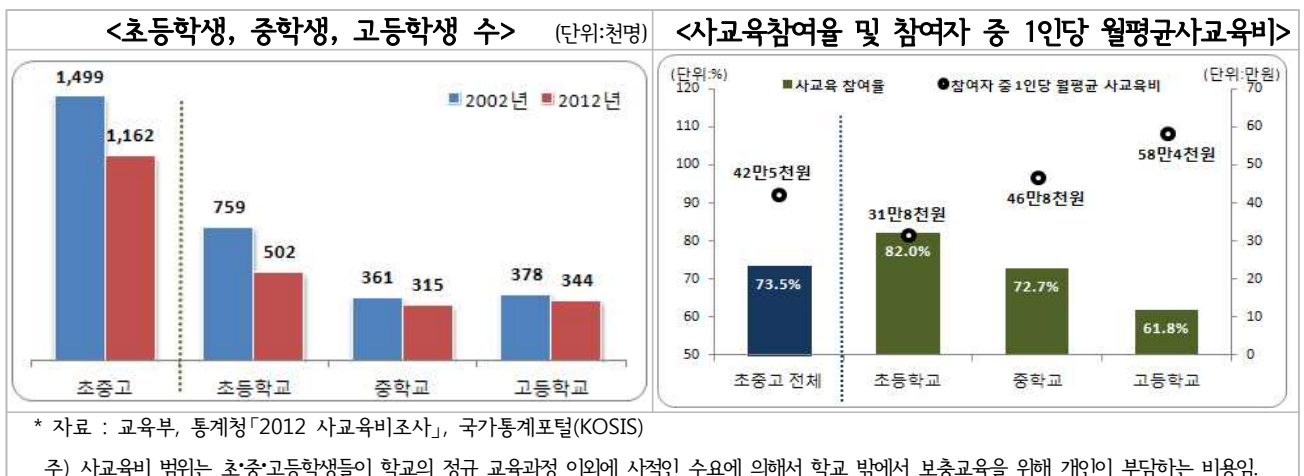
- ▶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률 49.0%, 이중 교우관계(64.2%)에서 만족률 가장 높음
- ▶ 학교교육효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낮게 인식, 지식기술의 습득효과(44.4%)가 가장 높음
- ▶ 서울 초·중·고등학생 수 10년 새 22.5% 감소 : 2002년 1,499천명 → 2012년 1,162천명
→ 사교육 참여율 : 초등학교 82.0%, 중학교 72.7%, 고등학교 61.8%

- 만 13세이상 학생들 중 절반은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음.
 - 분야별로 학교생활 만족도를 보면 교우관계에 만족도(64.2%)가 가장 높고, 불만족은 학교 주변환경(24.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교교육의 효과가 있다'에 지식과 기술습득(44.4%), 생활·취업 등 활용(34.2%), 인격형성(32.7%) 순으로 응답했고, 국가 및 사회관 정립에서 27.4%는 학교교육의 없다고 응답함.

< 학교생활 만족도 > (단위:%)									< 학교교육에 대한 효과 > (단위:%)					
2012년	계	만족			보통	불만족			2012년	계	효과 있음	보통	효과 없음	잘 모르겠음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100.0	49.0	10.1	38.9	41.9	9.0	7.0	2.0	지식기술의 습득	100.0	44.4	40.7	12.3	2.6
- 교육 내용	100.0	46.4	10.3	36.1	39.3	14.2	10.3	3.9	인격형성	100.0	32.7	40.8	24.2	2.2
- 교육 방법	100.0	40.2	8.5	31.7	42.6	17.1	12.4	4.7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	100.0	25.8	43.8	27.4	3.1
- 교우 관계	100.0	64.2	24.4	39.8	30.4	5.3	3.8	1.5	생활, 직업, 취업에의 활용	100.0	34.2	41.2	22.0	2.6
- 교사(교수)와 관계	100.0	46.0	12.9	33.1	44.9	9.2	7.2	2.0						
- 학교시설 및 장비	100.0	33.2	7.4	25.8	44.4	22.3	15.6	6.7						
- 학교 주변환경	100.0	30.5	5.9	24.6	45.3	24.2	17.1	7.1						
- 전공	100.0	40.8	12.9	27.9	43.2	16.0	11.2	4.8						

* 자료 : 통계청 「2012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서울 초·중·고등학교 학생수는 10년 새 22.5%(33만7천명) 감소함.
 - 특히, 초등학교 학생수는 10년 새 감소폭이 33.9%(25만7천명)로 가장 크고, 중학생은 12.7%(4만6천명) 감소, 고등학생은 8.9%(3만4천명) 감소
 - 2012년 서울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4조3,536억원, 전국 19조395억원 중 22.9% 차지
 - 초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82.0%(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31만8천원), 중학생 72.7%(참여학생 1인당 46만8천원), 고등학생 61.8%(참여학생 1인당 58만4천원)임.



8. 환경 및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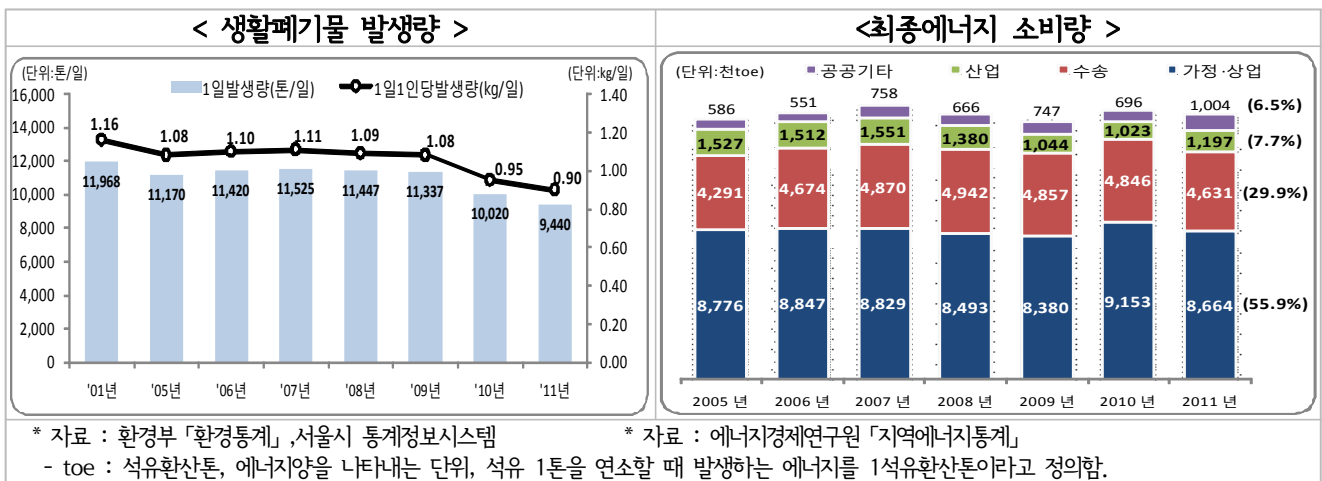
▶ 2011년 시민 1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0.90kg/일(국민1인당 0.95kg/일)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은 재활용 63.5%, 소각 24.8%, 매립 11.7% 순

▶ 최종에너지 소비량 8,664천toe(1인당 1.55toe), 이중 가정·상업 55.9%, 수송 29.9%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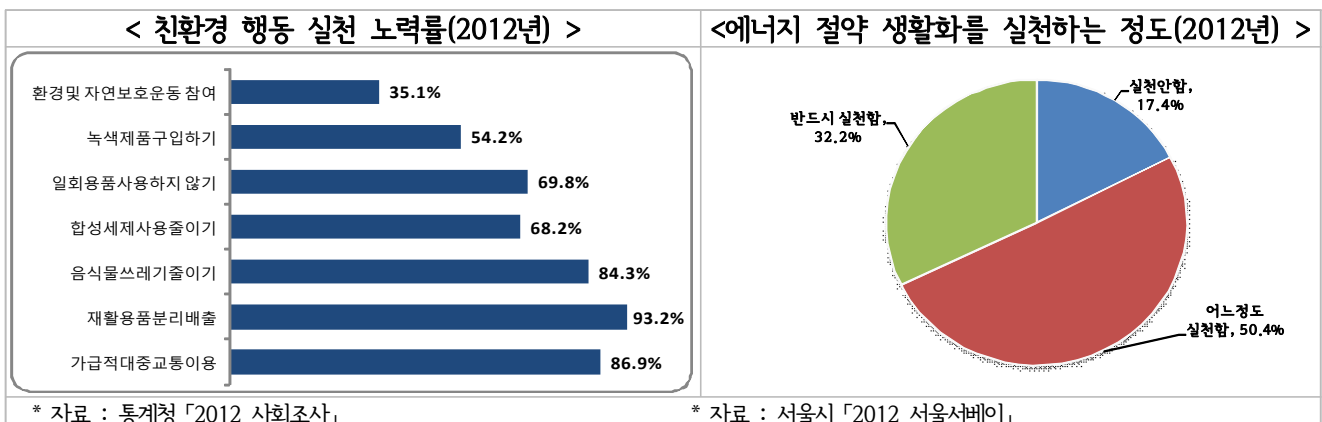
□ 2011년 하루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0.90kg/일(국민 1인당 0.95kg/일),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1인당 1.55toe(국민 1인당 4.14toe)임

- 생활폐기물 1일 발생량은 2001년 11,968톤/일에서 2011년 9,440톤/일로 감소하였으며, 1인당 발생량은 2001년 1.16kg/일에서 2011년 0.90kg/일로 감소함.
- 생활폐기물 처리유형 중 재활용은 63.5%, 매립은 11.7%, 소각은 24.8%임.
-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가정·상업에서 55.9%, 수송에서 29.9%를 차지하고 있음.



□ 만 15세이상 서울시민들 중 생활속에서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실천한다는 응답이 82.6%(반드시 실천 32.2%, 어느 정도 실천 50.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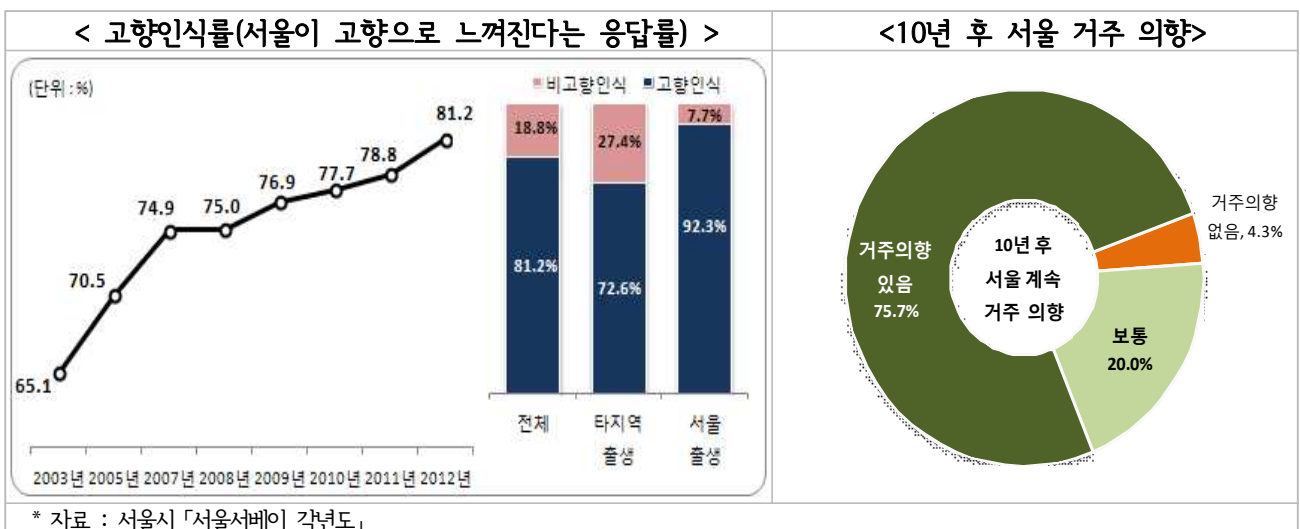
- 친환경 행동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해 노력하는 비율은 93.2%로 가장 높으며, 환경 및 자연보호 운동 참여는 35.1%로 가장 낮음
- 이외에 녹색제품 구입 54.2%,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69.8%,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 68.2%,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84.3%, 가급적 대중교통이용하기 86.9%로 나타남.



9. 고향인식률

- ▶ 고향인식률(출생지와 관계없이 서울은 내고향) : 2003년 65.1% → 2012년 81.2%
→ 서울출생 중 고향인식률 92.3%, 타지역 출생 중 고향인식률 72.6%
- ▶ 만 15세이상 중 이웃을 신뢰한다 40.1%, 신뢰하지 않는다 17.9%
- ▶ 향후 10년 후에도 서울 살고 싶다는 시민 75.7%, 살고 싶지 않다는 4.3%뿐

- 15세이상 서울시민 중에서 출생지와 상관없이 서울을 고향으로 느끼는 시민이 2012년 81.2%로 첫조사를 시작한 2003년 65.1%에서 16.1%p 증가함.
 - 2010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고 있는 만 15세이상 시민은 40.3%로 절반에 훨씬 못미치지만, 이에 비하면 서울시민의 고향인식률은 상대적으로 높은편임.
 - 특히, 타지역 출생 시민 중에서도 72.6%는 서울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살다보니 서울이 고향으로 느껴진다고 응답하였으며, 서울출생 중에서는 92.3%가 고향으로 느끼고, 7.7%는 태어났지만 고향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느낌.
 -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만15세이상 인구 중 서울 출생은 40.3%임.
- 15세이상 서울시민들 중 40.1%는 이웃을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시민은 17.9%, 41.9%는 보통이라고 응답함.
- 또한, 서울시민들 중 75.7%는 향후 10년 후에도 계속 서울에 살고 싶어하며, 거주 의향이 없다는 시민은 4.3%에 불과하였으며, 20.0%는 보통이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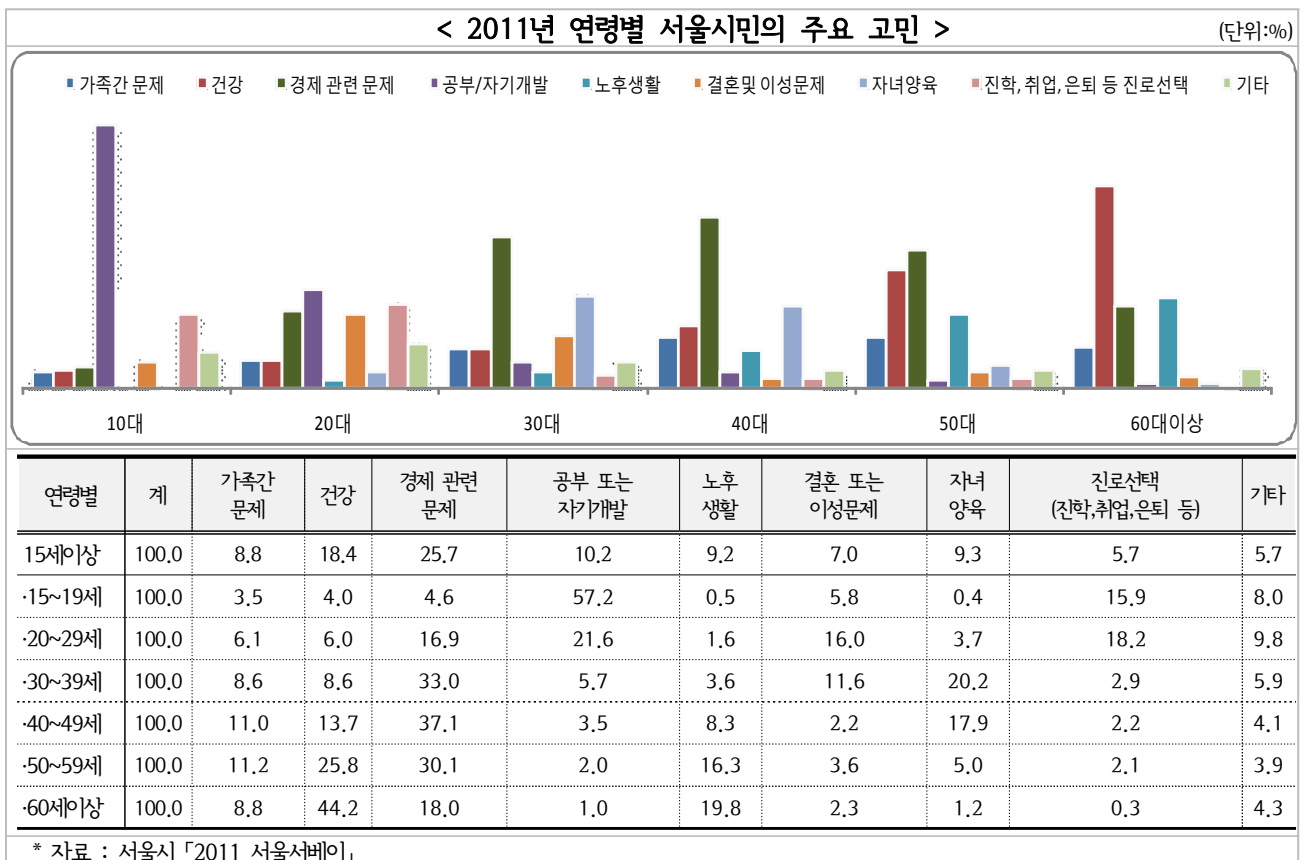
10. 서울시민의 주요 고민

▶ 서울시민의 주요 고민거리는 경제문제, 건강문제 순

- 10대는 공부, 20대는 경제,공부,결혼, 취업 문제 전반적으로 고민
- 30~40대 경제 및 자녀양육,
- 50대는 건강과 경제문제,
- 60세이상은 건강고민이 가장 큼

□ 15세이상 서울시민의 가장 주요한 고민거리로는 경제문제, 건강문제임.

-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공부로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으며,
- 학업·취업·결혼 문제에 모두 직면에 있는 20대는 경제, 공부(자기개발), 결혼, 취업 문제에서 전반적으로 고민이 된다고 응답함.
- 30~40대는 경제문제와 자녀 양육문제로 주로 고민하고,
- 50대에는 건강과 경제문제로 고민,
- 60세이상은 건강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응답함.



III. 인구 및 가구 통계(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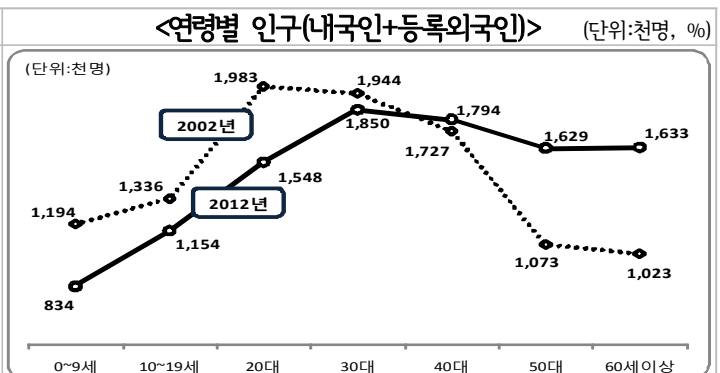
1. 인구

- ▶ 2002~2012년 서울인구 추이는 2002년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010년 정점찍고, 2년연속 감소
→ 인구 2002년 10,281천명 → 2010년 10,575천명 → 2012년 10,442천명
- ▶ 2012년 연령분포는 30대>40대>50대,60세이상>20대>10대>9세이하 순으로 많음

□ 최근 10년간(2002~2012년) 서울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10,281천명에서 증가하여 2010년 10,575천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1년 10,529천명, 2012년 10,442천명으로 2년 연속 감소함.

□ 서울은 2003년부터 여성인구(514만3천명)가 남성인구(513만4천명)를 추월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연령구조는 10년전(2002년)에는 20대가 198만3천명(전체 인구 중 19.3%)으로 가장 많았고, 2012년엔 30대가 185만명(전체인구 중 17.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0년 전 대비 10세미만 인구는 30.2%나 감소하였으며, 20대 21.9%, 10대 13.7%, 30대 4.9% 각각 감소한 반면, 50대는 51.8% 증가, 60세이상은 59.7% 증가함.
- 연령별 인구구조는 2002년에는 20대 19.3%, 30대 18.9%, 40대 16.8%, 10대 13.0%, 0~9세 11.6%, 50대 10.4%, 60세이상 9.9%에서 2012년에는 30대 17.7%, 40대 17.2%, 50대와 60세이상은 각각 15.6%, 20대 14.8%, 10대 11.1%, 0~9세 8.0%로 높은 연령층 인구가 점차 많아지고 있음.



연도별	총인구	남성	여성	연도별	총인구	남성	여성
1995년	10,596	5,326	5,270	2004년	10,288	5,129	5,159
1996년	10,470	5,258	5,212	2005년	10,297	5,124	5,173
1997년	10,389	5,214	5,175	2006년	10,356	5,145	5,211
1998년	10,321	5,174	5,148	2007년	10,422	5,175	5,247
1999년	10,321	5,171	5,151	2008년	10,456	5,185	5,271
2000년	10,373	5,198	5,175	2009년	10,464	5,181	5,283
2001년	10,331	5,176	5,155	2010년	10,575	5,237	5,339
2002년	10,281	5,145	5,136	2011년	10,529	5,208	5,320
2003년	10,277	5,134	5,143	2012년	10,442	5,160	5,283

10년 새 변화량	계	10년 새 변화량 (%)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2년	인구(A)	10,281	1,194	1,336	1,983	1,944	1,727	1,073	1,023
	구성비	(100.0)	(11.6)	(13.0)	(19.3)	(18.9)	(16.8)	(10.4)	(9.9)
2012년	인구(B)	10,442	834	1,154	1,548	1,850	1,794	1,629	1,633
	구성비	(100.0)	(8.0)	(11.1)	(14.8)	(17.7)	(17.2)	(15.6)	(15.6)
10년새	증감(B-A)	162	-360	-182	-435	-94	67	556	611
변화	증감율	1.6	-30.2	-13.7	-21.9	-4.9	3.9	51.8	59.7

* 자료 : 서울시 「인구(주민등록 내국인+등록외국인)」, 서울시통계정보시스템

2. 외국인 주민

▶ 서울거주 외국인 주민은 39만5,640명

→ 등록외국인 24만7천명,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7만9천명, 한국국적 취득자 4만천명, 외국인주민 자녀 2만9천명

▶ 만 15세이상 중 60.7% 외국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 신뢰한다 6.1% 뿐

→ 외국인을 이웃이나 친구로 수용하는 비율 각각 54.2%, 51.1%, 가족으로 수용하는 비율 41.2%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2009년 33만6,221명에서 2011년 40만6293명으로 증가했으며, 2012년에는 39만5640명으로 2011년 대비 2.6% 감소
 - 2012년 총 외국인 주민 중 장기체류(90일초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이 24만7천명,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7만9천명, 한국국적 취득자 4만1천명, 외국인주민 자녀 2만9천명임.
 - 꾸준히 증가하던 등록외국인은 2007년3월에 시행된 방문취업제 만료기간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나머지 외국인 주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외국인을 친구나 이웃으로 수용하는 비율은 절반이상이나 가족으로 수용하는 비율은 절반에 못미치고, 외국인에 대한 신뢰도는 6.1%에 불과함.
 - 만 15세이상 서울시민들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44.1%가 동의했으며,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데 30.8%가 동의함.
 -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해 이웃이나 친구로 수용하는 비율은 각각 54.2%, 51.1%로 나타난 반면, 가족구성원(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으로 수용하는 비율은 41.2%로 이웃이나 친구로 수용하는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또한 만 15세이상 서울시민들 중 60.7%는 다른나라 사람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 33.2%는 보통, 6.1%는 신뢰한다고 응답함.

< 외국인 주민 수 > (단위:명, %)						< 다문화 수용성(2012년) > (단위:%)				
2012년 기준시점은 2013년 1월 1일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2년 증감율 2009년 대비	2011년 대비				
외국인주민(계)	336,221	366,279	406,293	395,640	17.7	-2.6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 정책 필요	17.1	38.8	44.1
- 등록 외국인	255,749	262,902	279,220	247,108	-3.4	-11.5	인구감소문제 해결위해 외국인 이민정책 필요	28.4	40.8	30.8
-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27,549	41,512	61,901	78,658	185.5	27.1	외국인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3.4	32.4	54.2
- 한국국적 취득자 (혼인귀화자등)	33,909	37,781	39,164	40,589	19.7	3.6	외국인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15.4	33.4	51.1
- 외국인주민 자녀	19,014	24,084	26,008	29,285	54.0	12.6	외국인과 결혼하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23.4	35.5	41.2

* 자료 : 인적행정부 「외국인주민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시 「2011 서울사베이」
 주: 1) 등록외국인(체류기간 90일 초과 장기체류)은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결혼이민, 영주권 획득, 유학 등을 위해 들어온 외국인
 2)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는 거소신고를 해야 하고, 그 밖의 단순 노무분야 취업, 방문동거, 유학 등의 목적으로 국내 체류하는 경우는 재외동포라도 외국인 등록을 함.

3. 출생 및 사망

- ▶ 하루 평균 출생아 수 : 2002년 277명 → 2012년 257명
- ▶ 하루평균 사망자 수 : 2002년 105명 → 2012년 113명
- ▶ 사망률 2008년 이후 증가세 : 2008년 375.6명 → 2012년 412.6명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 사망원인 1위는 여전히 암이며, 10대 사망원인 중 폐렴, 알츠하이머병 사망률이 증가 추세
 - 알츠하이머병 사망률 2012년 처음으로 사망원인 10위안에 진입함.

□ 출생아수는 감소하고, 사망자수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음.

- 출생아 수는 2002년 10만1천여명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12년 9만4천여명에 이룸. 2012년 하루 평균 257명이 태어났음.
- 사망자수는 2008년 3만8천명에서 이후 4년 연속 증가하고 있어 2012년 4만1,514명으로 하루 평균 11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민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은 2008년 이후 증가세

- 사망원인 1위인 악성신생물(암)은 2002년 101.6명에서 2012년 123.3명으로 꾸준히 증가
- 10대 주요 사인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폐렴, 간질환, 만성하기도질환, 운수사고, 알츠하이머병이며, 알츠하이머병 사망률 2012년 처음으로 사망원인 10위안에 진입함.(2011년에는 고혈압성 질환 사망률이 10위였음)
- 10대 사인 중 뇌혈관질환, 간질환, 만성하기도질환, 운수사고는 감소세, 폐렴, 알츠하이머병 사망률은 증가세, 당뇨병은 2008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자살률은 2006년 17.1명에서 2011년 26.9명까지 증가하다 2012년 23.8명으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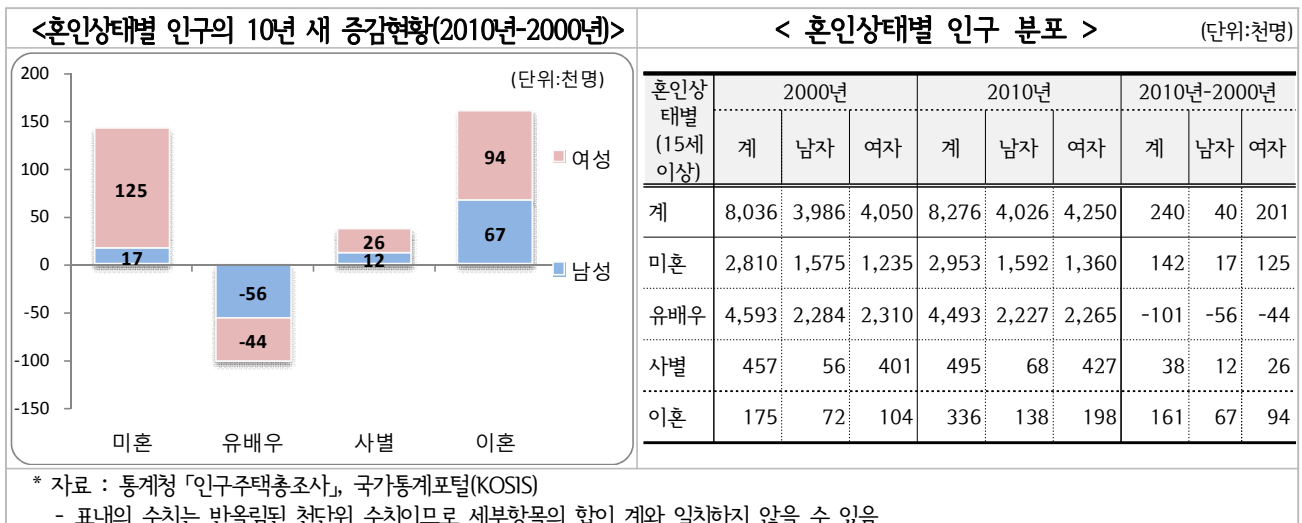
< 출생 및 사망 >						< 사망원인별 사망률 > (단위:명/인구10만명당)									
년도별 추이	출생			사망		2012년 사망원인 순위	사망률								사망자
	출생아 (명)	조출생률 (인구 천명당)	합계출산율 (기임여성1명당)	사망자 (명)	조사망률 (인구 천명당)		02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사망률(계)	376.1	374.6	379.4	375.6	380.1	394.4	398.6	412.6	41,514
2002년	100,928	9.9	0.995	38,491	3.8	1위 암	101.6	109.8	115	114.4	114.7	119.1	119.6	123.3	12,408
2006년	92,885	9.1	0.969	38,117	3.7	2위 뇌혈관질환	57	47.9	43.6	41.7	37.4	38.1	35.6	36.3	3,654
2007년	100,107	9.8	1.056	38,645	3.8	3위 심장질환	29.6	33.2	35.6	34.1	32.7	32.4	31.2	32.7	3,286
2008년	94,736	9.3	1.010	38,298	3.8	4위 자살	13.4	17.1	20.1	21.6	26.1	26.2	26.9	23.8	2,391
2009년	89,595	8.8	0.962	38,790	3.8	5위 당뇨병	19.9	16.6	16.3	15.2	15.6	16.3	17.6	19.4	1,948
2010년	93,268	9.2	1.015	40,130	3.9	6위 폐렴	3.6	5.4	5.2	5.2	8.3	10.8	11.9	13.5	1,356
2011년	91,526	9.0	1.014	40,320	4.0	7위 간질환	15.6	10.9	10.7	10.3	10.6	10.6	9.8	9.9	994
2012년	93,914	9.3	1.059	41,514	4.1	8위 만성하기도 질환	13.1	8.4	8.7	8.4	7.5	7.6	7.2	8.2	829
						9위 운수사고	8.9	7.9	7.9	7.7	7.5	6.7	6.3	6.4	644
						10위 알츠하이머병	1.3	1.6	2.4	2.1	2.6	3.2	4.4	5.9	590

* 자료 : 서울시 「인구(2012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출생, 사망)」, 국가통계포털(KOSIS)
 - 만성하기도 질환 :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

4. 혼인 및 이혼

- ▶ 평균 초혼연령(2002→2012년) : 남성 30.1세→32.4세, 여성 27.8세→30.2세
- ▶ 50세이상 이혼건수(2002→2012년) : 남성 4,777건→7,400, 여성 2,723→5,278건
: 50세이상 이혼 비중 남성 16.3%→36.7%, 여성 9.0%→26.0%
- ▶ 미혼인구 10년새 14만2천명↑, 이혼인구 16만1천명↑, 유배우 인구 10만1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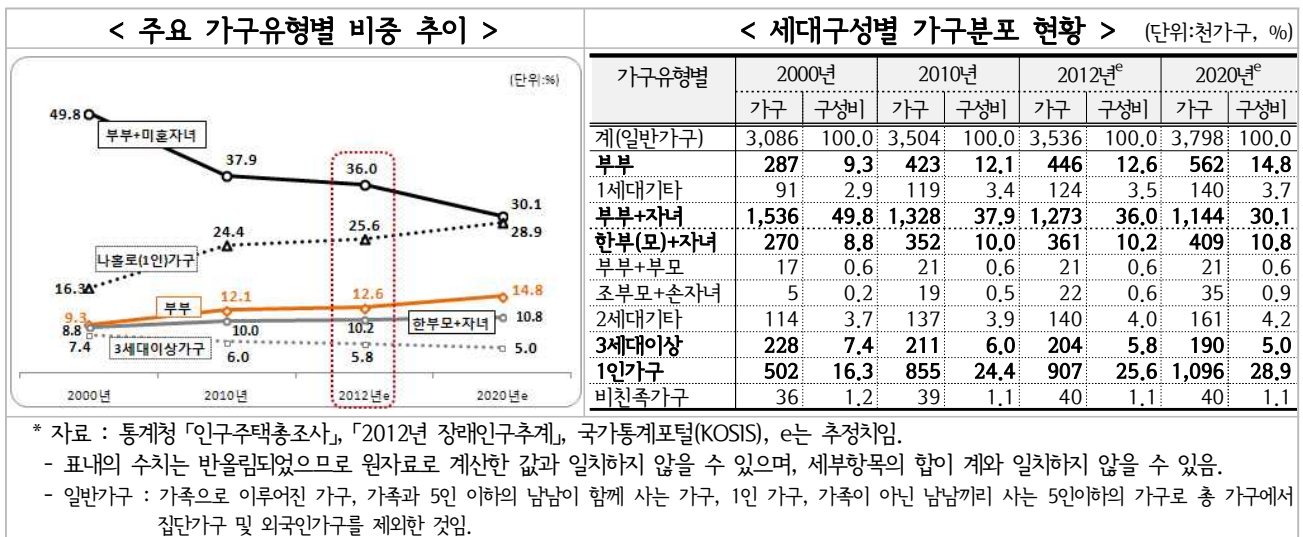
-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있어 2012년 남성은 32.4세, 여성은 30.2세에 달함.
 - 혼인건수는 2002년 7만3천건에서 2012년 7만2천건으로 1.4% 감소,
 - 평균초혼연령은 남성은 2002년 30.1세→2012년 32.4세, 여성은 27.8세 → 30.2세로 높아졌음.
- 이혼연령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2012년 이혼한 남성 중 50세이상인 36.7%, 이혼한 여성 중 50세이상인 26.0%를 차지함.
 - 이혼은 2002년 2만9천건에서 2012년 2만건으로 31.3% 감소함.
 - 50세이상 남성 이혼은 2002년 4,777건(남성 이혼 중 16.3%)→2012년 7,400건(남성이혼 중 36.7%)으로 증가, 50세이상 여성 이혼은 2002년 2,723건(여성 이혼 중 9.0%)→2012년 5,278건(여성 이혼 중 26.0%) 증가함.
- 미혼과 이혼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통계에 따르면, 미혼인구는 10년전(2000년) 대비 14만2천명 증가(이중 미혼여성이 12만5천명)하였으며,
 - 이혼인구는 10년 새 16만1천명(2000년 17만5천명→2010년 33만6천명) 증가하였음.
 - 반면, 유배우인구는 10년 새 10만1천명 감소함.



5. 가족형태

- ▶ 1인·부부·한부모 가구 비율 : 2000년 34.3% → 2012년 48.5%
 - 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비율 : 2000년 49.8% → 2012년 36.0%
- ▶ 1인가구 12년새 80.5% 증가 : 2000년 50만2천가구 → 2012년 90만7천가구
 - 2012년 1인 가구 20대~30대 49.2%, 40~50대 27.4%, 60세이상 22.0% 차지

- 서울의 가족형태가 1인가구, 부부가구, 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소핵가족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음.
 - 서울의 가구유형은 2000년만해도 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사는 가구가 49.8%로 절반을 차지하였으나, 2010년 37.9%, 2012년 36.0%로 줄었으며, 1인가구는 2000년 16.3%→2012년^e 25.6%, 부부만 사는 가구는 2000년 9.3%→2012년^e 12.6%, 한부모 가구는 2000년 8.8%→2012년^e 10.2%로 증가하였음.
 - 따라서, 1인·부부·한부모 가구가 2000년 34.3% → 2012년 48.5%로 증가하였음.



- 특히 1인가구는 2000년 50만2천가구에서 2012년 90만7천가구로 12년새 80.5% 증가, 2인가구는 12년새 56.8% 증가, 3인가구는 19.0% 증가한 반면, 4인가구 (-23.0%)와 5인이상가구(-38.2%)는 감소하였음.
 - 1인가구 증가의 주원인은 20~30대 청년층의 미혼과 60세이상 고령층의 사별, 40~50대 장년층의 이혼인 것으로 보임.

